제지용 분산제 90% 자급

국내수요 1560톤 중 1400톤 … 정우정밀 80% 점유

국내 제지용 분산제의 자급도가 9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92년기준 제지용 분산제의 국내수요는 1560톤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89.7%인 1400톤을 국내에서 공급했고 10.3%인 160톤을 수입에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공급은 정우정밀에서 1150톤으로 8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산노프코가 240톤으로 17.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정원화학에서 24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대화상사에서는 거의 공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품은 대부분 일본제품인데 일성교역에서 TOAGOSEI제품을, 한생에서는 KAO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제지용 분산제 공급현황(1992) (단위 : M/T)

구 분		수량	수입·공급처	상품명
국내공급	정우정밀	1,150	-	KOSANT
	한국산노프코	240	-	SN-Dispersant
	기 타	10	-	-
	소 계	1,400	-	-
수입	TOAGOSEI	160	일성교역	ARON
	KAO		한생	POISE
	기 타		-	-
	소 계	160	-	-

국내 제지업계는 비교적 꾸준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여 분산제의 수요도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2~3년간의 제지업계 신·증설로 인해 공급과잉이 발생함에 따라 분산제도 92년부터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산제는 도공안료의 분산을 위하여 안료의 0.3%의 범위에서 첨가되고 있는 고분자 물질이다.
과거에는 인산염계의 분산제가 사용되었으나 인산염계가 공해물질인 관계로 Polyarylates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음이온성 분산제만이 활용되고 있으나 비이온성 혹은 양이온성 분산제가 개발되어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적으로 보면 각종 안료의 특성에 적합한 분산제의 구조와 분자량을 설계하여 생산하는 것이 필요한데, 백토보다는 탄산칼슘의 분산제 요구량이 크므로 앞으로 탄산칼슘의 활용이 증대되면 분산제의 소비량도 이에따라 증가할 전망이다.
가격은 국산이 KG당 800~900원선에 거래되고 있고 수입품은 1000~1100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3/10/18>